

영화에서 빨강의 상호작용적 의미

The Interactive Significance of Red in Film Color : Concentration and Diffusion

김종국
백석대학교

Kim jong-guk
BaekSeok Univ.

요약

영화색채는 서사를 비롯한 영화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기능을 하며, 표현의 독자성에 따른 텍스트적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빨강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며, 그로부터 유발된 의미는 확산된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에서 집중의 기능과 확산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집중과 확산의 개념은 독자적 색채, 색채와 다른 영화적 요소들의 관계, 색채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중성을 담보한 일련의 한국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색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특히 빨강의 집중 기능과 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I.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화에서 빨강의 사례는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중영화의 빨강에 한정한다. 서구에서는 과테가 체계화한 화학적, 생리적, 물리적 색채의 상징 의미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Goethe, 2003). 동양에서는 중국의 전통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¹⁾. 동서양의 색채 상징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색채배색, 색채혼합, 색채병치, 색채조화에 관한 실험을 통해 색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조셉 알버스의 방법론을 따르면, 기본적인 색채상징은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그 의미 또한 달라진다²⁾. 일상의 색채상징이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재현될 때는 그것의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수많은 상이한 의미를 유도하는 것이다. 색상과 인접한 색상 간의 상호작용은 집중과 확산의 기능을 하며 그에 따른 의미를 창출한다. 어떤 색상에 집중된 기능은 인접한 다른 색상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확산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색상들 간의 첫 번째 상호작용이다. 이에 관한 방법은 조셉 알버스가 제안한 색채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에 따른다. 색상의 집중된 기능과 확산된 의미 간의 상호작용은 또 다른 상호작용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색채가 영화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화의 통일되고 총체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단계별 상호작용에 따른 색채의 기능과 의미를 이 연구에서는 이중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지칭한다. 영화색채는 이중의 상호작용에 따라 영화의 결정적인 의미에 기여한다.

II. 분석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대중성을 담보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을 영화의 대중성에 근거한 것은 특정 영화에 관한 주관적 평가보다는 대중의 선호를 반영한 객관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기준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이 제공하는 역대박스오피스 공식통계에 따른다. 통합전산망은 1-500위까지의 박스오피스 순위에 오른 역대 한국영화의 목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명량>(2014)에서 <살미도>(2003)까지 천만 관객 영화가 14편이며, 오백만 이상이 <추격자>(2008)부터 46편, <분신사바>(2004)부터 백만 이상이 316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영화 500편 모두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이 가운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영화색채 분석에 유의미한 일련의 영화들을 선별한다. 빨강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거나,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빨강의 기능과 의미가 분명한 영화들이 분석대상이다. 예를 들면, 최근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은 <아가씨>(2016)는 흑과 백의 주조색에 그 경계에서 초록을 미학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초점인 빨강에서는 제외된다.

분석방법은 영화에서 색채를 활용한 사례 연구, 포스터와 오프닝 타이틀에 표현된 색채의 심리적 현상, 색채가 관객의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과 의상의 색채 특성, 영화제목의 색채어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등 심리적이고 전통적인 상징 의미를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한다. 또한 동서양의 색채 논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따른 빨강의 심리적 상징, 문화적 차이의 의미는 영화에서 명시적으로 활용한 빨강의 미학적 기능 및 사회문화적 의미의 분석에 적용한다. 동서양에서 재현되는 빨강

의 화학적, 생리적, 물리적, 상징적 의미와 영화에서 재현된 빨강의 의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빨강이 활용되고 있는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빨강은 색과 색, 색과 다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다. 서론에서 밝힌 바처럼, 이 연구는 영화색채가 기능하는 이중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중과 확산의 의미를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방법이 전통적인 색채학, 기호학, 문화이론 등을 영화색채에 직접 적용하는데 그친다면, 이 연구는 기존의 색채학 연구를 토대로 이중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빨강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색한다.

Ⅲ. 분석결과

1. 상징과 은유, 내셔널리즘

한국영화에서 빨강은 가장 기본적인게도 민족, 국민, 국가를 상징한다. 민족, 국민, 국가를 둘러싼 내셔널리즘의 빨강이 이념과 갈등을 시각화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목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빨강을 통해 매개된다. 영화에 재현되는 국기, 이름표, 의상 등이 빨강이다. 상징과 은유를 통한 내셔널리즘의 빨강은 〈부산행〉(2016), 〈암살〉(2015),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7번방의 선물〉(2012), 〈태극기 휘날리며〉(2004)와 같은 영화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몸, 젠더와 섹슈얼리티

여성의 몸에 부착된 빨강은 사회문화적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고착시키고 강화시킨다. 영화에서 여성은 빨간 립스틱, 목도리, 의상, 장신구 등의 소품을 통해 빨강이 강조되고, 그것은 성적 시선을 끌며 남성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젠더를 강화시킨다. 〈국제시장〉(2014), 〈도둑들〉(2012), 〈괴물〉(2006), 〈연애의 목적〉(2005), 〈님은 먼 곳에〉(2008) 등의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몸에 빨강을 부착시킨다. 한편, 〈천하장사 마돈나〉(2006)는 빨강과 파랑, 그리고 두 색의 혼합색 보라를 통해 탈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언급한다.

3. 핏빛 잔혹극, 공포와 주술 혹은 분노와 복수

인류 역사에서 피는 생명이다. 한국영화에서 피는 주술적 공포, 분노, 복수를 지시하는 시각적 장치이다. 피 없는 한국영화가 없을 정도이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장면에서조차도 피는 필수적이다. 그만큼 피의 시각적 효과가 강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포영화는 핏빛 잔혹극이다. 공포를 유발하는 강력한 요소로 빨간 피가 시각을 지배한다. 〈이웃사람〉(2012), 〈화이트:저주의 멜로디〉(2011), 〈고死:피의 중간고사〉(2008), 〈분신사바〉(2004), 〈알포인트〉(2004), 〈시실리2km〉(2004), 〈장

화, 흥련〉(2003), 〈여고괴담〉(1998) 등이 피로 칠한 영화들이다.

4. 빨간 눈물의 구성된 감정, 아름다운 욕망과 화려한 비극

〈왕의 남자〉(2005), 〈올드보이〉(2003), 〈살인의 추억〉(2003)에서 빨강은 역사로서 살인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명징한 시각장치이다. 이들 영화에서 피눈물은 구성된 사회적 감정을 가리킨다. 한편, 〈26년〉(2012)은 빨강 콤플렉스를 직접적으로 내세운다. 이 영화는 빨간 추리닝, 빨간 피 등 빨강을 주체화한다. 이와 반대로, 빨강 콤플렉스를 절제하는 영화가 〈변호인〉(2013)이다. 〈친절한 금자씨〉(2005)에서는 감정의 과잉으로서의 빨강이 부각된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것 같은 멜로의 〈해피엔드〉(1999)에서는 정사와 불륜, 그리고 살인이 과잉된 빨강으로 표현된다. 한국사회의 이주자와 다문화화를 보여주는 빨강의 구성된 감정을 〈완득이〉(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득이〉와는 달리, 〈황해〉(2010)는 이주자의 빨강을 타자화한다. 이보다는 약한 단계에서 〈방가? 방가!〉(2010)의 부단인 방가(김민권 분)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빨강으로 타자화된다.

Ⅳ. 결론

모든 한국영화에 표현된 빨강을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위의 네 가지 범주 내에서 빨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이 빨강의 전통적인 고유 의미의 의미를 영화색채에 적용하거나 그 반대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이중의 상호작용 단계에 걸쳐 중층 결정되는 빨강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도출하고 정리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영화의 빨강에서 출발한 이 연구가 초록, 주황, 하양, 검정, 회색 등의 향후 연구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 [1] 하용득, 한국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 1986.
- [2] Albers, J., 실험에 의한 색채구성, pp.17-144, 서재행역, 일지사, 1980.